

# 2018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4.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II.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1. 제안이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조 5,90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조 9,163억 4,600만원에  
 대비하여 11.5%(3조 6,742억 4,500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조 2,06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2조 7,115억 5,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조 3,84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9,626억 9,200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5,590,591	31,916,346	3,674,245	11.5
일반회계	25,206,157	22,494,604	2,711,553	12.1
특별회계	10,384,434	9,421,742	962,692	10.2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5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53억 8,000만원에  
 대비하여 4.2%(99억 9,200만원) 증가하였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b>계</b>		<b>245,372</b>	<b>225,380</b>	<b>9,992</b>	<b>4.2</b>
일 반 회 계	행정운영경비	215	215	-	-
	재 무 활 동	2,643	1,732	911	52.6
	사 업 비	242,514	233,433	9,081	3.9

### 3.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없으며, 세출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49억 8,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억 4,200만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억원,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15억 3,400만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8억 3,800만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억 4,300만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5,300만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4억 8,600만원 등 사업비 90억 8,2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3개 담당관) 9억 1,100만원 등 총 99억 9,200만원 증액되었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안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총 11개 사업	(×967) 122,662	(×967) 112,670	9,992
서울형 뉴딜일자리(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85,648	80,662	4,98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24) 1,366	(×724) 724	642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304	3,004	300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1,534	-	1,53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630	20,792	838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953	2,710	24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856	2,803	53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243) 729	(×243) 243	486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일자리정책담당관)	1,718	1,141	577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노동정책담당관)	8	4	4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사회적경제담당관)	916	587	329

###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세입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음.

##### 나. 세출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11건으로 99억 9,2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건의 사업비와 3건의 재무활동비(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임.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총 11개 사업	(×966,500) 122,662,050	(×966,500) 112,669,818	9,992,232
서울형 뉴딜일자리(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85,648,000	80,662,000	4,986,0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23,500) 1,365,383	(×723,500) 723,500	641,883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304,000	3,004,000	300,000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1,534,200	-	1,534,2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629,357	20,791,541	837,816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953,000	2,710,000	243,00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856,157	2,803,642	52,515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243,000) 729,000	(×243,000) 243,000	486,000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일자리정책담당관)	1,718,151	1,141,041	577,110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노동정책담당관)	8,434	4,145	4,289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사회적경제담당관)	916,368	586,949	329,419

## 2. 주요 사업별 검토

###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27쪽)

- 서울시는 고용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 경험 제공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고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총 806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뉴딜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면 참여 가능하고, 선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 9,220원에 최대 23개월, 전일제로 근무하게 됨.<sup>1)</sup>
- 서울시는 2018년 뉴딜일자리를 통해 250개 사업, 총 4,655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유형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1) 2017년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취업률은 52.9%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함.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유형별 규모〉

(단위 : 명)

합계	서울시 추진사업	자치구 추진사업	민간공모 사업				
			소계	市사업부처 민간공모	공공 특화분야	민간기업 맞춤형	청년 아이디어
4,655	2,655	700	1,300	300	300	400	300

- 추정안은 서울시와 대학교, 강소기업<sup>2)</sup>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청년 대상 신규 민간 뉴딜일자리로, 750명의 청년에 대한 월 220만원의 인건비, 총 49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뉴딜일자리 추정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5,648,000	80,662,000	4,986,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9,717,000	-	
사무관리비	-	6,578,180	-	
민간경상사업보조	27,412,720	22,426,720	4,986,000	◦ 민간부문 뉴딜일자리 인건비·교육비 4,986,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11,740,100	-	
시설비	-	200,000	-	

2) 서울형 강소기업 : 서울시 소재 기업 중 시 및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 또는 시 일자리 정책 협약기업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근무환경,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을 꼼꼼히 따져 본 평가에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곳 기업으로 선정된 곳.

-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뉴딜일자리는 선발된 20개 대학의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구직자, 특히 STEM분야<sup>3)</sup>의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사업은 민·관·학이 연계하여 일 경험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경력을 갖춘 구직자를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사업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대학과 중소기업의 선발부터 매칭, 근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이미 대학의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학점 인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듦.
-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학일자리센터<sup>4)</sup>의 취업프로그램 중 우수인재 중소기업 매칭 사업이 이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됨.
-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인건비 지원만 포함되어 있어, 선발된 대학이

---

3) 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4) 대학일자리 협력사업 지원(2018년 10억 6,150만원, 정부 50% 시 25% 대학 25% 매칭)  
건국대,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일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덕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



강소기업 모집, 홍보, 심사, 매칭 등을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신규 편성된 이 사업이 기존의 대학일자리 협력 사업, 강소기업 지원, 뉴딜일자리 등과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29쪽)**

-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18년 30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위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추경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04,000	3,004,000	300,000	
사 무 관 리 비	460,000	460,0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2,844,000	2,544,000	300,000	◦ 취업날개(면접정장 무료 대여) 3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기정예산 25억 4,400만원 중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6억 1,800만원임.

- 취업날개서비스는 2016년 KEB하나은행 기부금 1억원을 활용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고교졸업예정자~만 34세 이하)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사진 촬영과 헤어메이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3개의 운영업체(마이스윗인터뷰, 열린옷장, 체인지레이디 등)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 이용실적은 총 13,579명임.

### 〈최근 3년간 취업날개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총 계
대여자 수	4,032	23,219	13,579	40,830
집행액	비예산	746	465	1,211

- 서울시는 2017년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을 위해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면접정장 대여자가 급증하며<sup>5)</sup> 3차례에 걸친 예산 변경을 통해, 총 7억 4,9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음.

5) 이용가능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0회로 증가시키고, 한 개였던 운영기관이 세 곳으로 증가하며 사업의 이용자가 급증하였음.

## 〈2017년 취업알개서비스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 내역	예 산 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단 사	위 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질 개선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고용 보조금 지원	1,780,000	-	583,700	1,196,300
					취업알개 서비스 지원	166,000	583,700	-	749,700

- 2018년부터는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sup>6)</sup>하고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6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7월 현재 사업 예산의 75.2%(집행잔액 1억 5,300만원)가 집행되어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소요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번 추경편성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취업알개서비스 지원 예산이 아닌 동일 통계목의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추가경정예산안 96쪽)

6) 종전까지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내 대학 졸업생이면 면접정장 대여가 가능했음.

## 다.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30쪽)

- 이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구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하고자 추경을 통해 15억 3,42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임.

###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추경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34,200	-	1,534,200	
사무관리비	30,000	-	30,000	◦ 프로그램비 등 30,000
공공운영비	184,200	-	184,200	◦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무인경비 등) 184,200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	-	20,000	◦ 프로그램비 2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	1,300,000	◦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1,300,000

- 서울시는 2017년 3월 청년구직자에 대한 취·창업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구 장교동 소재) 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sup>7)</sup>한데 이어, 노량진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음.

7) 센터 구성에 1억 8,58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협약에 의해 인건비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예산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는 국가가 각각 부담하고 있음. 2018년 13,869명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을 이용함.

##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개요〉

- 시 설 명 : (가칭) 서울시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 운영시기 : 2019년 1월 이후
- 설치장소 : 동작구 노량진동 129-15  
(19층 건물 중 지상 2,3층, 동작구 소유)
- 면 적 : 645.46㎡(195평)
- 공간배치(안)

2층(322.73㎡) : 힐링	3층(322.73㎡) : 취업/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진로상담 코너(전문가 상담 등)</li> <li>▶ 취업날개 공간(이력서 사진촬영 등)</li> <li>▶ 일자리카페(키오스크 설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링상담 코너(스트레스 관리 등)</li> <li>▶ 스터디룸(그룹 및 개인)</li> <li>▶ 다목적홀(강연, 문화공연 등)</li> </ul>

- 청년수험생이 다수 거주하는 노량진지역에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수험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창업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추경안이 제출된 후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안(2018.8.31, 일자리정책담당관-14033)이 수립된 것에서 보듯이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계획을 재수립한 후 내년도 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센터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 공사 등의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안대로 2019년 1월까지 센터가 정상 개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따라서 개관 이후 집행될 프로그램 운영비(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31쪽)

- 서울시는 시민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네 곳(동부, 중부, 북부, 남부)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이 사업의 예산은 총 207억 9,154억원으로, 총 154개 학과 7,298명의 교육생을 훈련시킬 계획임(서울시과정 89개 학과 4,954명, 국가협력과정 65개 학과 2,333명).
-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남부기술교육원 등의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하반기 기술교육원의 정상운동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3,781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추경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1,629,357	20,791,541	837,816	
사무관리비	138,000	138,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	16,000	-	
민간위탁금	15,255,110	14,417,294	837,816	°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 기숙사비 등 837,816
민간위탁사업비	6,220,247	6,220,247	-	

- 남부기술교육원은 최근 몇 년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는 등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음.

### 〈남부기술교육원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조직/인사	- 운영법인인 엘림복지회의 부당한 인사 관여 - 남부기술교육원, 엘림노인요양원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 운영
인권	- 수탁기관 상임이사의 교직원 인권침해 등
시설운영	- 엘림복지회의 실질적인 주사무소를 남부기술교육원내 운영 (허가조건 위반)
예산삭감/개편요구	- '18년도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50% 삭감 - 남부기술교육원 매각, 용도 전환 등 재검토 요구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편성예산의 절반 수준인 25억 7,700만원만을 심의·확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필요예산의 70% 수준임.
- 남부기술교육원은 상반기 2개 학과 폐과와 교육인원 감소, 교육시간 축소 등을 통해 감액된 예산으로 교육원을 운영하였으나, 기정예산으로는 하반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상반기 교부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금 예산 중 불용예상금액 2억 5,600만원을 남부기술교육원에 추가로 교부하였음<sup>8)</sup>.
-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전년대비 70%로 줄었던 남부기술교육원의 교육시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교육생의 식사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
- 하반기 기술교육원 교육생의 선발(2018.8.24. 최종합격자 발표)이 모두 완료된 현 상황에서 기술교육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안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의 개선의지가 없는 방안 운영이 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남부기술교육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

8) 각 기술교육원의 예산은 교육생당 표준훈련비에 비례하여 편성하며, 매년 10% 정도의 증도 탈락자 발생으로 불용금액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번 기회에 4개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32쪽)**

-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노동권익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8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노조설립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 침해 구제 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임.
- 노동복지센터의 공간조성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사업비 8% 이내)를 개소당 연간 3억 2,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현황〉**

구 분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광진구	관악구
위탁인법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협의회	서울일반노동조합	강서양천민중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설립일	'11.5.12	'11.7.27	'12.3.20	'12.6.1	'17.7.10	'17.9.18	'17.10.19	'17.11.1
현위탁기간	'17.1.1~'18.12.31	'17.6.22~'19.12.31	'18.1.1~'20.12.31	'17.1.1~'18.12.31	'17.7.10~'19.12.31	'17.9.8~'20.9.7	'17.10.19~'20.10.18	'17.11.1~'20.10.31

- 이번 추경안은 노동복지센터를 3개 자치구에 신규로 설치<sup>9)</sup>하기 위해 4개월분의 운영비 2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추경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3,000	2,710,000	243,000	○ 노동복지센터 설치(3개소) 243,000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시민들이 노동관련 복지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구민을 위한 센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신규 설치 대상 자치구 선정, 공간조성, 위탁업체 선정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후 절차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신규 센터의 공간 조성이 지연될 경우 추경예산의 불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실제 2017년 개소 센터 중 성북, 관악은 당초 개소 일정보다 3~4개월 착수가 지연되었고, 서대문의 경우는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예산이 미집행된 바 있어, 남은 회계연도 내 3개소의 신규 센터의 설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9) 사전 수요조사 결과 6개구(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중구, 강남구, 은평구)가 유치 희망의견을 제출하였음.

바.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3쪽)

- 서울시는 취약근로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인식을 개선하고자 서울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 소재)를 위탁 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28억원) 대비 5,251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 증액된 예산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3,600만원, 전문상담사 운영을 위한 810만원, 상근자 연장근무수당 및 대체근무자 고용을 위한 예산 841만원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추경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 간 위 탁 금	2,856,157	2,803,642	52,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실시 36,000</li> <li>◦ 전문상담사 운영 8,100</li> <li>◦ 상근자 연장근무수당 및 대체근무자 고용 8,415</li> </ul>

- 현재 서울 노동권익센터에는 특수고용노동자<sup>10)</sup>의 권익개선을 위해 특화된 네 곳의 ‘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 중이며, 쉼터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10)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근로자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못한채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라고 함.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됨.

- 서울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쉼터 상근자는 단순 시설관리자로 연장근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당을 편성하지 않아 상근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쉼터 이용자의 급증<sup>11)</sup>에 따른 운영 시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상근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대체근무자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어 관련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음.

### 〈휴서울노동자쉼터 현황〉

쉼터명	규모 (㎡)	운영 인력	주이용대상	운영시간	일평균	비고
서초쉼터	151	3명	대리기사	18:00~06:00	70명	'16.3월 개소
북창쉼터	300	3명	퀵서비스노동자	08:30~20:00	57명	'17.6월 개소 ※ 장소 이전('18.4월)
합정쉼터	165	5명	이동노동자	08:30~06:00	48명	'17.11월 개소
상암쉼터	250	3명	미디어 노동자	09:30~18:00	10명	'18. 5월 개소

-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조차 전무한 현실임.
- 정부에서도 최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11) 2017년 월 이용자 2,259명→2018년 3,713명

보호를 위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상담, 법률상담, 금융 복지상담 및 교육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하여, 쉼터를 통한 특수 고용노동자 지원, 전문상담사 충원, 상근자 수당지급 사업이 추경안을 통해 긴급하게 증액해야 하는 사업인지 다소 의문시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